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으로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하루의 계획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10회

## 10. 아담에게 보여준 확실한 구원의 경륜

2010년 5월 29일(안식일 아침)

[창3:17~21]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됴이더라 21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序;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죽은 생명, 곧 육체의 생명으로 탄생하시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원천적인 생명으로 순결한 처녀에게 잉태하여 탄생하셨기 때문에 결코 아담 안에서 죽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을 대신하여 죽어줄 자격이 있고 그래서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아담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구원의 도리는 분명합니다. 창세기 2장 3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연구할 때 한 점의 오해도 없이 구원의 복음의 근원부터 잘 알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사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아담에게 보여준 확실한 구원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 1. 네가 어디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완전하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에덴동산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동산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서 마귀의 유혹으로 영똥한 생각을 하여 마침내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벌거벗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영광과 존귀로 둘러싼 그 빛의 옷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졌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성질은 이렇게 본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앞으로 치마를 엮어 두르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창3:6~9]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 이에 그들의 눈이

뱀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8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있는 위치, 처소에 대하여 물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은 결코 아니지요. 이런 질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담 부부가 창조주가 있으라고 한 자리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했던 일입니다.

[유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루시퍼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아마 그때도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대답합니다.

[창3:10]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으나 여전히 벗은 대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뭇잎 치마가 그들의 벗은 것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은 영광과 존귀의 빛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은 참 비감어린 질문이며 창조주가 곤란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아 너희들이 있는 위치는 창조주인 나를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자리이다. 너희들은 이제 죽어야 한다. 그런데 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나로 하여금 이 두 사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죽기도 해야 하고 생육 번성도 해야 하는 자리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조주인 내가 너희들 대신으로 죽어야 할 자리이다.” 이런 뜻이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 부부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아담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의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그 죽음을 여자의 후손이 대신 당하시는 대속으로 자기와 자기에게서 생육하고 번성할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자기의 후손들의 죽음을 대신 처리하실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담이 그 사실을 깨달은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주의해서 깊이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였습니다.

## 2. 아담의 아내의 이름 하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선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사망선고입니다.

[히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를 없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그분의 십자가로 사망을 폐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3:15에서 여자

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성취한 것일 뿐입니다.

이보다 먼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창3:15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음을 처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자기는 사망이 되었지만, 자기의 사망이 된 육체의 생명의 씨로 오지 않고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만 영생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이 탄생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아직 선악과를 먹은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뱀에게 사망선고를 하시고 다음에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 중의 창3:17~19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3:17~19]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부부가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된 영향으로 지구가 저주에 빠진 사실을 가르쳐주시고 지구의 모든 창조 때 제정된 천연계의 법칙과 질서가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창조 질서와 천연계의 법칙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부부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 안에는 생명을 생육할 생명의 씨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는 사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옆에 아내가 서 있습니다. 그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새로운 눈으로 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아내 이름이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언제 지었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모른다면 아직 구원의 복음의 기초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복음이 기초가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처음에는 그냥 여자라고만 지었습니다.(창2:23)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선언하신 후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창3:19에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있고, 바로 다음 20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창3:20]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됴이더라.

하와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됴이더라고 하여 그 뜻이 “산 자의 어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사망인 것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과 대조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사용했지요. 이제는 아담에게 준 생명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반납하여서 이제 아담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입니다. 그러나 여자에게서 생명이 있는 분이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을 깨달은 아담은 자기 아내인 여자에게서 생명의 씨가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창3:15 말씀의 뜻을 아담이 알았다는 증거

입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은 창3:15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담의 신앙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 신앙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아담도 오실 구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3. 가죽옷을 지어 입힘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것으로 창3:15의 복음 선포를 믿는 신앙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가르쳐준 것이 바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창3: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은 가죽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지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짐승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이 짐승처럼 아담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아담은 이때 죽음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의 생명을 입혀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아담의 사망을 취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아담과 그 후손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짐승이 무슨 짐승일까요?

[계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양입니다. 킹제임스 역에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구역에는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사상에 합당합니다. 예수님은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양이십니다. 그분이 비록 기원 31년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아담부부에게 가죽옷을 입히실 때 이미 죽임을 당할 것을 확인했으니 의미상으로는 그때 이미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아담 이후로 그의 모든 후손은 이렇게 장차 죽임을 당하실 여자의 후손의 구속을 멀리 바라보고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는 미래의 일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한 모든 일을 믿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구원의 경륜을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구원의 경륜에 의하여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순결한 처녀의 태를 빌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인데,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아담 대신 실제로 죽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참으로 아주 자세히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가죽으로 옷을 이어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속의 구원은 전적으로 창조주께서 행하시고 사람을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 교훈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구주가 오셔서 아담과 아담 안에서 죽은 그의 모든 후손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짐승을 죽여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담을 대신하여 죽는 일을 할 때까지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희생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내어야 했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은 구주가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제사는 율법으로 기록되었으나 그것은 구주가 오셔서 대속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요1:10~13]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 4. 가인-얻었다는 외침.

이런 일련의 사건이 진행 되는 동안 여자 하와의 상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풀이죽어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은 이 여자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말이 아닐 수 없지요. 게다가 남편이 자기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어줬을 때는 이제 풀이 죽어 있다가 기가 살아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속기는 자기가 속았지만 자기를 속인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인 자기 몸에서 나올 남자(아들)가 깨어버릴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속 시원한 일입니까. 하와는 속히 자기가 아들을 낳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창4:1]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깰 자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얻었다고 소리쳤습니다. 뱀의 머리를 깰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는 외침이지요. 그러나 그는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말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인은 아담의 씨로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의 씨가 아담 안에서 죽은 씨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하와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담과 동침하고 잉태한 아이는 남자나 여자나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는 뱀의 머리를 깰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아담 안에서 뱀인 사단에게 속하여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4:1에서 가인을 나올 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라는 말을 분명히 기록하게 함으로 남자와 동침한 일이 전혀 없는 여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야 한다는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탄생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밝혀 기록했습니다.

[마1: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창4:1과 대조로 여기는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외친 것은 속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에게 속아서 사망이 된데서 해방되어 생명을 회복하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소원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탄생할 때까지는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5. 두 아들의 제사

[창4:1~5]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던지라 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5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의 내용도 아담에게 구원의 경륜을 확인하는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부모 밑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믿음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믿음을 스스로 나타내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제사를 드릴 날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부모와 함께 부모가 드리는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말이면 제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번역된 말을 직역을 하면 “날들의 끝에”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주말(週末)입니다. 주말은 예배의 날입니다. 즉 일곱째 날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이지요. 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독립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때, 아벨은 부모에게서 배우고 보고 들은 대로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와 아벨을 열납하셨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라는 핑계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속죄제가 아닙니다. 즉 죽음을 대속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히9: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지만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죽은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는 사건이 생길 것인데, 그것은 아담과 그 안에서 죽은 모든 그의 후손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 이 이일을 성취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하여 속죄 제물로 드릴 때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있는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는 죽은 자로 간주됩니다. 가인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지라도 죽은 자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전혀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드리는 것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했다고 기록하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제물에 아니라 제물을 드린 그 사람들을 받고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벨은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살아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는 말이

고, 가인은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로 간주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속죄의 도리, 곧 구원의 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죄의 실상을 도덕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망이 된 상태를 뜻합니다. 모두 사형수들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대신 그 사형을 당하시고, 아담과 그 안에서 죽은 모든 사형수들의 사형을 면제하여 준 것입니다. 이것을 호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믿고 호흡하고 지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이 속죄제 드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그래, 너는 속죄제를 드렸으니 살았고, 나는 죽은 자라고 하는데, 너는 안 죽는지 보자.”하고 죽인 것입니다. 아벨의 육체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의 후손 안에서 약속된 영생의 생명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새 아침을 맞을 때까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둘째 부활을 한 후에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런 기록들은 모두 아담에게 구원의 도리를 자세히 가르쳐주신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연구하여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난 우리들, 아담의 후손들이 구원의 도리를 올바르게 깨닫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런 모든 예언적 사건이 가르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구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 모든 희생의 짐승이 표상한 대로 그분은 우리의 죄, 곧 우리의 사망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성경은 이런 확실한 사실을 아담과 그의 가족들의 행적으로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성경의 이런 이치를 깨달으셨습니까? 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시고 오늘도 이 생명으로 힘 있게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기록으로 구원의 도리를 자세히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되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주옵소서. 아담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신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예수 안에서 얻은 그 생명으로 힘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고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설교자는 760-329-3846이나, 626-590-5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1.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신분